삶의 안정 인프라 세 재앙

(출9:1~35)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3.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4.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5.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6.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7.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 본문 전체를 염두에 두면서 <삶의 안정 인프라 세 재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세 가지 자유부인 재앙'
세 가지 재앙은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나오는 심한 돌림병 재앙, 악성 종기 재앙, 주먹덩이만한 우박 재앙을 '자유부인 재앙'이라고 한 이유는, 이 세 가지 재앙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정비석 씨의 장편소설 "자유부인"이라는 소설은 읽지 않았어도 무엇을 말하는지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전통적인 윤리적 관습에 얽매이는 것이 싫어서 그 틀을 벗어나 선망과 유혹과 질투와 울분으로 인한 탈선과 좌절과 실의에 빠지는 여주인공을 소개한 글을 그대로 옮겨와 봤습니다. 여주인공의 남편이 이해와 아량으로 서로 과오를 뉘우치고 다시 가정으로 복귀한다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만 어쨌든 자유부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석 씨의 자유부인이 아니라,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부인 아십니까?
자유의 여신상.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자유의 신상이 왜 하필이면 여신상일까?
아마 자유의 신상이 여신상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보편적인 인류역사 속에서 여자들이 항상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억압당한 상태에서 살아왔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아마 자유의 여신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오른손에는 세계를 비추는 자유의 빛을 상징하는 횃불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습니다.
자유와 독립이 자유부인의 특징인데, 아무나 이 자유부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새는 이혼이 많은데 이혼하면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므로 자유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막상 내가 이혼을 하려고 하면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제일 많이 걸리는 문제는 남편을 떠나서 먹고 살 길이 있느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만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축도 아니고 사람답게 살려면 문화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억압당하고 있는 부자유한 생활 속에서 자유와 독립이 온전한 의미를 지닌 채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안정된 삶을 위한 기본 infra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먹고 사는 것과 경제적인 여유와 건강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외에 친구라든지 단체에 소속해서 활동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들입니다.
이러한 자유부인이라는 비유적인 상황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또 조금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유부인이 되어서 안정된 삶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 상태 자체가 재앙인 것은, 절대로 안정을 찾을 수도 구축할 수도 없고 안정된 삶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인프라는 불가능한 것인데, 인간들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다는 증거가 온전한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스스로 안정된 삶의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주 속에 있는 재앙적 삶의 징표이며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담 이후의 인간에게 주어진 재앙은 영적인 것이지만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므로, 파악이 안 된다고 해서 인정하지 못할 뿐이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재앙이 임했다는 증거와 재앙의 증후군이 나타나는데, 오늘 출애굽기에서처럼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펼쳐내고 보여주며 선민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의 한 나라였고, 히브리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화려한 선진 문명의 대국을 이루어놓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문명발상지와 선진대국인 애굽에서의 삶의 본질적 특성이 바로 재앙이라는 것을 선민들에게 가르쳐 주십

니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화려한 것 같고, 굉장히 발전된 삶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재앙의 삶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에덴으로부터 추방 된 뒤에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이 없이 이룬 문명의 본질이 열 가지 재앙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 가지 재앙은 무엇인가?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네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가축은 히브리어로 '미크네'라는 단어인데 '사들인 어떤 것, 취득한 것'을 뜻하고 우리로 말하면 '수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축이 그런 의미를 지닌 미크네로 불리는 이유는 요즘의 재산은 증권, 돈, 부동산 등이 재산이지만, 그 당시의 가장 대표적인 재산은 가축이었는데 그 재산인 가축에 돌림병이 돌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 10절에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종기가 생기고"
모세가 화덕에서 재를 한 움큼 쥐어서 공중에 뿌리니 그 재가 다 종기로 변해서 온 애굽의 사람과 짐승에 달라붙어서 괴롭히는데, 이 종기가 아마 욥기에 나오는 종기 같은 지독한 악성종양으로 결국은 건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가축이라는 재산의 경제적 재정 상태에 돌림병이 생겼고, 두 번째 재앙인 종기는 건강을 말하는 것으로 가축의 건강이건 내 몸의 건강이건 또한 가축에서부터 옮겨지는 병을 일컫기도 하면서 가축이든 사람이든 건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세 번째 우박을 통해서 또다시 짐승과 밭의 모든 수확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게 바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재앙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살게 해주는 조건들을 다 언급하면서, 그 안정된 삶을 위한 조건들이 문제가 생기고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삶의 안정을 추구하고 안정된 삶의 조건을 구축하려는 그 상태 자체가 재앙이고 재앙의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밭에서 나는 곡식과 채소라는 수확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건강이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여유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재앙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축에게 돌림병이 일어나고, 건강에 종기로 인해 적신호가 켜지고, 우박으로 인해 밭의 모든 수확이 잔멸되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된 삶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 생각되는 것들이 성립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렇게 불가능한 조건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90세 넘는 사람이 너무나 자주 보이는 이런 세상에서, 이건희 씨가 건강문제로 연세에 비하면 비교적 일찍 침상에 누워 계시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다른 이유들 때문에 마음이 여전히 불안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세 가지가 다 있어도 마음에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온전히 마음의 안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느냐?
세상의 현자들,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나타나서 마음의 평강과 안정과 평정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삶의 조건을 안정되게 구축해서 안정된 삶을 얻으려고 하는데,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잘 살펴보니 돈이 있고 먹고 살 것이 있고 건강이 다 있더라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 자체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안심입명(安心立命)이고, 원효대사의 무애사상(無碍思想)과 같은 마음에 거칠 것이 없는 평정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서양으로 가면 에피쿠로스학파와 같이 아타락시아(Ataraxia)가 됩니다. 아타락시아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에피쿠로스학파 중에서도 비교적 회의론자에 속하는 피론(Pyrrhon)과 같은 사람은 무관심이야 말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고, 비슷하게 스토아학파에서는 아파테이아(Apatheia)라고 해서 파토스(pathos)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추구하는데, 파토스라는 것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나의 감정이 북돋아지고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 아파테이아라는 것은 그 파토스로부터 나의 마음을 격리시키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지혜롭고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된 삶을 살겠다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보이고, 건강을 유지하고 먹을 것을 확보해서 안정 된 삶을 살겠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정비석 씨의 소설 자유부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여자 주인공인 오선영이 남편에게 잘못했어요. 자기 남편이 대학교수인데 남편의 제자와 바람을 피우고,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결혼반지를 빼버립니다.
경제적인 여유와 건강을 유지하고 먹고 살 것을 확보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를 만나 그 남자로부터 안정을 찾으려는 것과 같다면, 아타락시아나 아파테이아를 추구하거나 안심입명과 무애사상을 추구하는 현자들의 태도는 남편에게 잘못해서

불편한 마음을 용서를 빌고 화해해서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반지를 빼버리는 방식으로 자기 마음을 조작해서 편해지려는 방법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바람을 피워서 남편과 헤어졌지만 돈과 건강과 먹고 살 길을 확보하여 안정을 찾으려는 바람둥이가 있고, 또 하나는 남편과 화해를 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마음을 조작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현자라는 자들의 참으로 발칙하고 무의미한 짓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안정이 안 되고 왜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까?
삶의 안정적인 조건이 있어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자들이 이 주소는 정확하게 짚은 것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무리 바뀌어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므로 마음 자체를 조작해서 안정할 수 있는 마음 상태로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라는 것은 땅 위에 있는 우리들의 노력과 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그것과 담을 쌓아서 이루어지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20:19절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고, 또한 요14: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의 안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재앙 속에 있다는 특징은 이 땅에서 내가 안정된 삶을 구축하겠다고 날뛰고 있는 것이고, 그 조건을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똑똑한 사람들은 내 마음을 조작해서 마음에 세뇌를 시킵니다.
“마음아! 마음아! 돈이 있고 없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것이다. / 마음아! 마음아! 사람에게 매이지 말아라. / 눈에 보이고 5감관을 통해서 접하는 모든 상황은 다 가짜이니라. / 공(空)이다.” 라고 마음을 자꾸 세뇌시켜서 마음이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겠다는 것인데 다 거짓입니다.
에피쿠로스학파가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다 거짓이고, 스토아학파도 거짓이고, 불교도 근본적으로 거짓입니다. 성철 스님은 돌아가실 때에 “자신은 거짓말쟁이이고 수없이 많은 중생을 지옥으로 빠뜨렸다”라고 하고 돌아가셨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하나님께 가서 그 잘못을 빌고 관계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잘못된 상태를 외면해버리고 마음을 조작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하고, 하나님 외에 돈과 건강과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게 발칙하고 망측한 짓 아닙니까? 이게 자유부인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안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요한복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평안을 끼치노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20장과 14장 두 군데가 다 성령과 곧바로 연관이 되는데, 이 말은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감각기

관의 역할을 해주심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의 안정은 우리 마음이 하늘에 가서 보관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머물고 있을 때에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삶의 환경이 안정되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빠진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것은,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잠을 주무실 때 마음은 하늘로 가서 성령을 통해 아버지를 느끼고, 아버지를 만지고, 아버지께 안겨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안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이시고 남편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는데 그 관계를 회복해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틀어진 상태에서 이 땅에서의 안정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면 안정 될 것 같습니까? 마음이 불안한 이유를 들여다보면 돈이 없기 때문이죠. 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 같아서 불안하시죠? 당장 내일 먹고 살 끼니가 없어서 불안하시죠? 그래서 불안하시다면 아직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고, 먹고 살 것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은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먹고 살 것은 생존을 위한 기본조건이고, 돈을 번다는 것은 먹고 살 것이 해결 된 뒤에 나타나는 욕구로 명품을 사고 싶은데 못 사서 불만스럽고, 문화생활로 일 년에 한 번은 크루즈를 타야 하는데 돈이 없어 못 타서 불만스러운 것들을 말하는데, 아직도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다면 재앙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눈으로 보면 애굽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삶의 속을 들여다보면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면, 그들이 안정된 삶을 위해서 구축하고 있는 모든 인프라가 사실은 전부 성립될 수도 없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위해서 삶을 안정되게 구축하고 있다고 믿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하늘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안정 된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면 얼른 십자가를 붙잡고, 그 돈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스토아학파의 아파테이아와 비슷한 것 같고, 에피쿠로스학파의 아타락시아와 비슷한 것,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돈 없는 상황이 내게 주는 자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돈 없는 상황에 매여 있는 마음을 풀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마음이 다른 데에 묶여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남편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며, 자유부인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타락시아나 아파테이아나 불교의 안심입명 같은 이야기는, 다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조작하는 것으로 비록 돈은 없고 풍성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을 훈련시켜서 평강을 얻겠다는 것으로 수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는 이유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대상 자체가 남편을 대치하는 바람피우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바람피우던 대상으로부터 관계를 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세상의 3대 조건인 먹고 살 것, 건강, 경제적인 여유가 충족되지 않아서 마음에 안정감이 없을 때에는 내가 재앙 가운데에 있음을 알고, 이 재앙은 남편이시자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안정을 구축하려고 하지 말고, 건강을 찾아서 안정을 구축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주님의 동선을 따라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갖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느끼게 하시므로, 내 건강과 먹고 살 것과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과 경제와 먹고 살 것에 마음을 쓰는 자들이 아닌 것은, 바로 고센 땅에 이 세 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고센 땅은 선민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선민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안정된 삶의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안정을 기대지 않는 자들로써, 이들에게는 이 세 가지 안정된 조건에 대해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은 그것에 기대어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민의 삶은 오직 하늘로부터만 안정감과 평강과 평안을 찾아 누리는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더 이상 남편과 틀어진 상황에서 생기는 불안에 대해 먹고 살 것을 확보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적 여유를 찾아서 안정되게 누리려고 하는 악한 자유부인의 마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